

국정원장 임명장 수여식

국회는 국회로서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있습니다. 서로 권한을 존중해야 합니다. 국회가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좋지만, 임명을 하라 마라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월권입니다. 추경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